일본과 일계인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고찰*

- 해외 일계인 대회를 중심으로 -

최민경**
minminchoi@gmail.com

Contents

Ⅰ. 문제 제기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구축과 일계인 커뮤니티 확대 노력: 디아스포라 확대기
Ⅳ. 모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의 제기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정착기
Ⅴ. 글로벌화의 진행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변화: 디아스포라 재이동기
Ⅵ. 결론

Ⅰ. 문제 제기

지난 10월 말, 도쿄에서는 제54회 해외 일계인 대회(海外日系人大会)가 열렸다.[1] '일계인(日系人)'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본거지를 옮겨 영주할 목적으로 생활하는 일본인 및 그 자녀"를 뜻하는데,[2] 이들 일계인이 바로 이 해외 일계인 대회를 통해 매년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제54회 해외 일계인 대회에는 약 200 명의 일계인이 참석하여, 모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 대회 선언을 채택하고 일왕의 둘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1028456).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1) 제54회 해외 일계인 대회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31일에 걸쳐 헌정기념관(県政記念館)과 JICA 이치가야(市ヶ谷)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2) 海外日系人協会(2012)「日系人について知ろう—海外日系人とは」, http://www.jadesas.or.jp/aboutnikkei/ index.html (검색일자: 2014.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들 부부,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교류회를 가졌다. 해외 일계인 대회를 주최하는 해외 일계인 협회(海外日系人協会)에 따르면 이 대회의 목적은 "해외의 일계인이 모국 일본에 모여 거주국의 실상을 일본에 알리고, 나아가 국제 교류, 국제 이해, 국제 친선을 다짐으로써 세계에서의 일본 이해 촉진 및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3] 이는 해외 일계인 대회가 최근 사회 과학 영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하나임을 말해 준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민족 이산, 또는 이산한 민족 집단 자체를 칭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융성과 더불어 보다 일반적인 용어, 예를 들어, 재외 동포, 해외 이민 등과 호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초국가주의적 시각에 있어서 이민은 모국으로부터 뿌리 뽑혀(up-rooted) 이주국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국과 이주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결과적으로 이주국과 이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던 이민 연구의 초점은 모국과 이민의 관계를 포함한 것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용성이 대두하였으며,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대상이다. 그렇다면 해외 일계인 대회를 통해 보는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는 어떠할까? 모국의 세계 대전 패전으로 인해 단절된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는 일본의 국제 사회 복귀와 더불어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전후 일본의 사회 변동과 일계인 커뮤니티의 변화 속에서 고유의 양상을 보이며, 이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해외 일계인 대회의 전개 과정에 반영되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채택된 대회 선언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전후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와 대안이 제시되어 왔을까?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후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의 국제적인 사람의 이동 양상을 기준으로 ①디아스포라 확대기(1957년~1973년),[4] ②

3) 海外日系人協会(2013)「海外日系人大会」, http://www.jadesas.or.jp/taikai/index.html (검색일자: 2014.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디아스포라 정착기(1973년~1990년), ③디아스포라 재이동기(1990년~현재)로 시기 구분을 하겠다.[5] 이는 모국 일본의 사회 변동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디아스포라 확대기'는 전후 일본의 부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확고해지기 이전의 시기로,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이민이 송출되었으며, 그 결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규모는 확대하였다. '디아스포라 정착기'에는 고도 경제 성장의 달성, 경제 대국으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배경으로 해외로의 이민 송출이 중단되고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 없이 모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간다. '디아스포라 재이동기'는 글로벌화의 진행과 더불어 일본으로의 이민 유입과 디아스포라의 해외 이동이 현저해지는 시기인데, 특히, 중남미 지역 일계인의 모국 귀환은 이 두 현상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에 의거하며 외무성(外務省) 외교 기록 사료와 해외 일계인 협회 기관지 『해외 일계인(海外日系人)』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외무성 기록 사료는 1998년 6월 15일 제14회 외교 기록 공개 조치를 통해 공개된 『본국에 있어서의 협회 및 문화 단체 관계: 해외 일계인 협회(本邦における協会及び文化団体関係 海外日系人協会)』와 『본국에 있어서의 협회 및 문화 단체 관계: 해외 일계인 협회, 해외 일계인 대회 관계(本邦における協会及び文化団体関係 海外日系人協会 海外日系人大会関係)』라는 자료로, 대게 1970년대까지의 기록을 포함한다.[6] 한편, 『해외 일계인』은 연2회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으며, 1977년 창간되었기 때문에 외무성 외교 기록 사료로 파악할 수 없는

4)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해외 이민 전체의 역사를 고려하면 '디아스포라 확대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전전(戦前)을 포함하여 보다 길어진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1957년에 시작된 해외 일계인 대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므로 전후에 국한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5) '1973년'과 '1990년'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한 것은 이 두 해가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의 국제적인 사람이 이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73년을 마지막으로 일본으로부터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해외 이민 송출은 중단되었으며, 1990년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소위 '입관법(入管法)'개정을 통해서는 모국으로 귀환하는 일계인이 급증하였다.

6) 외무성 기록 사료는 관련 자료가 하나의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되어 공개되며 각각의 자료는 별도의 일련 번호를 갖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무성 기록 사료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작성 연도, 자료명과 더불어 해당 외무성 기록 사료의 일련 번호(I'-1-8) 까지만 기재하도록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70년대 후반부터의 해외 일계인 대회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Ⅱ. 선행 연구 검토

초국가주의적 시각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당연시되어 왔던 국민국가(nation-state)를 기본 단위로 하는 분석 방식을 상대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흐름과 관계성에 주목한다. 이민은 초국가주의적 시각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존의 이민 연구가 이민을 모국에서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이주국에 동화되어 가는 존재로만 바라봤다면, 초국가주의적 시각에 있어서 이민은 모국과 이주국을 잇는 사회 영역을 구축하고 이를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된다.[7] 그리고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시각의 대두는 디아스포라 개념의 재발견, 재정의로 이어졌다. 모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초국가주의적 시각과 공명하여 재조명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등의 역사적 이산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망명 집단, 해외 커뮤니티,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 등"의 "보다 현대적인 이산 집단" 또한 지칭하며,[8] 새롭게 디아스포라로 '탄생'한 민족 집단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또한 국내외에서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는 2002년 제1회 세계 한상 대회가 개최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중에는 세계 한상 대회를 단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연구도 있으나,[9] 대부분의 경우 세계 한상 대회를 기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한다. 세계 화상 대회(世界華商大會)와의

7) Schiller, Nina Glick, Linda Basch & Cristina Szanton Blanc(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 p.1.

8) Tölölyan, Khachig(1996),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5(1),p.3.

9) 김재기(2010)「글로벌 시대 '세계 한상 대회'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한국 동북아 논총』57, 한국동북아학회, pp.319-34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비교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10] 인도인 또는 유대인과의 비교를 시도하기도 한다.[11] 이러한 연구는 한국 정부의 재외 동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생산적인 제언을 이끌어 내려는 명확한 목표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계 한상 대회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모국으로의 투자 유치나 무역 관계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세계 한상 대회보다 긴 역사를 지니고 다양한 차원에서 모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한상 대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국외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모국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이민과 국제 개발 협력을 연동시켜 고찰하는 최근의 연구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12]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 이민이 그곳에서 획득한 각종 자원을 모국에 투입함으로써 국제 개발 협력과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이민과 모국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또한 개발도상국인 모국의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정착한 소말리아 디아스포라가 정기적으로 모여 모국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10) 임채완 · 리단(2005)「초국가 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오프라인 사례 분석: 화상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13(2), 대한정치학회, pp.219-241; 전형권(2005)「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대한정치학회보』13(2), 대한정치학회, pp.95-125; 최승현(2007)「한민족 네트워크 벤치마킹을 위한 화교 네트워크의 의의」『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19,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267-281.

11) 전형권(2004)「세계의 인교 네트워크 발전과 인도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에 주는 함의」『대한정치학회보』12(2), 대한정치학회, pp.201-228; 김경학(2006)「초국가주의와 종족 네트워크: 인도인 디아스포라 사례를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2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249-265; 최창모(2007)「세계 유대인 네트워크와 반유대주의」『디아스포라연구』1(1),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79-94.

12) Weiner, Agnieszka(2010), "Instrumentalising Diasporas for Development: Internal European Policy Discourses", in Rainer Bauböck & Thomas Faist,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Agunias, Dovelyn Rannveig & Kathleen Newland(2010),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A Handbook for Policymaker and Pratictioners in Home and Host Countries,* Washingt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회의를 분석한 연구 등이 흥미롭다.[13] 그 밖에도 이민과 국제 협력 개발을 연동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은 인도나 자메이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14]

그런데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바로 "이들[디아스포라]이 갖는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이다.[15] 세계 한상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국내 연구도, 국제 개발 협력과 연동시켜 이루어지는 국외 연구도 마찬가지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모국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는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기 십상이고, 디아스포라는 모국에 자원을 투입하여 무언가를 기여하는 존재로만 자리매김하며, 그 결과 민족성의 도구적인 측면, 즉, 어떠한 목적, 많은 경우, 모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모국 중심의 활용론적 접근"은 디아스포라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극복되어야 할 특징이다.[16] 그렇다면 "모국 중심의 활용론적 접근"에서 벗어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임채완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등의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17]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을 포함할 것이다. 첫째는 모국의 사회 변동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변화를 염두에 둔 통시적 분석이고, 둘째는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가

13) Kleist, Nauja(2008), "Mobilising the 'The Diaspora': Somali Transnational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2), pp.307-323.
14) Mani, Bakirathi & Latha Varadarajan(2005), "'The Largest Gathering of the Global Indian Family': Neoliberalism, Nationalism, and Diaspora at Pravasi Bharatiya Divas", *Diaspora* 14(1), pp.45-74; Sives, Amanda(2012), "Formalizing Diaspora-State Relations: Processes and Tensions in the Jama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50(1), pp. 113-128.
15) 임채완(2008)「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 현상' 접근: 초국가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 논총』49, 한국동북아학회, p. 486.
16) 임채완, 위의 글, p.486.
17) 임채완, 위의 글, p.48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는 의미를 고찰하는 분석이다. 즉, 모국이 규정하는 디아스포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규정하는 모국과의 관계를 긴 시간에 걸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해외 일계인 대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해외 일계인 대회는 앞으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 일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해외 일계인 대회는 1957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시적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각 지역의 일계인 대표가 제안하고 이를 대회 선언이라는 형태로 공식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18] 그러나 이처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 상 시사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계인 대회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전의 역사적 이민 연구와 1990년대 이후의 귀환 디아스포라 연구로 양분되어, 전후 약 40년의 시기가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와 같기 때문이다. [19]이시다 치에(石田智恵)와 임채완・임영언・박구용의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기존 연구이지만 이시다 치에의 경우, 해외 일계인 대회의 창설 경위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20] 임채완・임영언・박구용의 경우, 해외 일계인 대회가 걸어 온 발자취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21]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국의 사회 변동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변화

18) 해외 일계인 대회는 통상 3일에 걸쳐 개최되는데, 대회 선언은 둘째 날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채택된다. 대표자 회의는 각 지역의 일계인 대표와 참가자, 그리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이후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분과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심화시킨 후, 이를 정리, 대회 선언으로 채택한다.

19)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겠다. 최민경(2012)「전후 일본 정부의 일계인에 대한 인식 변화: 1960~1980년대 재외 국민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55(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135-137.

20) 石田智恵(2010)「戦後日本における『日系人』の誕生—1957年『海外日系人大会』開催の意味」『移住研究年報』16, 日本移民学会, pp.97-108.

21) 임채완・임영언・박구용(2013)『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를 반영하는 전후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의 국제적인 사람의 이동 양상에 따라 해외 일계인 대회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잃어버린 고리'를 잇고 일계인을 중심으로 모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모국 중심의 활용론적 접근"에서 벗어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를 시도한다.

Ⅲ.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구축과 일계인 커뮤니티 확대 노력: 디아스포라 확대기

1. 해외 일계인 대회의 탄생

전쟁으로 인해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 일본과 미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서 전전 일본인 이민의 주요 목적지였던 미주 지역 각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 전전, 일본인 이민은 일정 기간 돈을 벌어 귀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모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연결고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일본의 패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는 전후, 새로운 논리 하에 재정립될 수밖에 없었다.

전후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의 관계 복구는 일계인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모국에 구호 물자를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패전 직후의 일본의 상황은 참혹하여 식품, 의약품 그리고 기타 각종 일용품을 해외로부터의 구호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최대의 구호 물자 제공국이었던 미국은 대부분의 구호품을 유럽으로 보냈고 일본은 소외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황폐한 현실을 알리고 구호 물자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간 것이 일계인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본 난민 구제회(救済会)', 뉴욕의 '일본 구제 뉴욕 위원회',

울: 북코리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리우데자네이루의 '브라질 적십자 공인 일본 전재(戰災) 동포 구원회' 등의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구제 공인 단체(Licensed Agencies for Relief in Asia: LARA)'가 탄생하였는데, 이 단체를 통해 일본에 제공된 구호 물자를 '라라(LARA) 물자'라고 한다. '라라 물자'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제공되었으며 구호품의 많은 부분이 미주 지역 각국에 거주하는 일계인의 기부에 의해 모인 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 일계인, 특히 미국 거주 일계인에게는 '적국(敵国) 출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실제로 이들은 전쟁 중, 강제 수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빼앗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2] 게다가 일본으로의 구호 물자 제공 자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팽배하여, 뉴욕 지역 일계인의 경우, 조직을 결성한 후에도 당국이 모금 운동을 허락할 때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계인은 식료품, 의류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일본으로의 구호품을 모았고, 결과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 그 중에서도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라라 물자'는 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일본과 일계인의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23] 이후 해외 일계인 대회라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 일계인의 지원 활동에 대하여 일본의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여, '해외 일계인 연락 사무소'를 중심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제 연맹 가입을 기념하며 1957년 '국제 연맹 가맹 기념 해외 일계인 친목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해외 일계인 대회의 시작이다. 이후 공식 명칭을 해외 일계인 대회로 바꾼 후, 1960년에 제2회, 1962년에 제3회 대회가 열렸고, 1963년부터는 매년 개최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으며, 지금과 같은 형식, 내

22) 미국 정부는 일본과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돌입하자 미국 거주 일계인을 '적성(敵性) 외국인'이라 카테고리화 하고 기존의 생활 기반이 있던 지역에서 퇴거 조치한 후, 내륙 황무지의 시설에 강제 수용하였다. 미국 전역에 11곳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 약 12만 명의 일계인이 수용되었다.

23) 飯野正子(2000)『もう一つの日米関係史—紛争と協調のなかの日系アメリカ人』東京: 有斐閣, p.11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용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대회를 주최해 온 '해외 일계인 연락 사무소'도 체계화 되어, '해외 일계인 연락 협회(1960년)' 그리고 '해외 일계인 협회(1964년)'로 거듭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일계인 대회가 개최의 물꼬를 튼 직접적인 배경은 '라라 물자'였으나, 이렇게 시작된 해외 일계인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왜 이 대회가 개최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일부 일계인 중에는 해외 일계인 대회를 통한 모국과의 관계 회복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 중 강제 수용 등의 경험을 한 미국 거주 일계인은 전후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어디까지나 '미국 시민'이라는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도 전전의 경험에 비추어, 일계인은 어디까지나 이주국 현지의 시민임을 거듭 강조하며 거리두기를 해 왔다. 그런데 돌연 외무성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외 일계인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자 일계인은 이러한 움직임이 '현지 시민'으로서의 일계인의 자리매김과 배치된다고 판단, 반대하기에 이른다. 1956년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는 외무성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다.

> 이전부터 우리 해외 이주자는 외무성의 방침으로 각각 이주국의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 그 나라의 흙이 되도록 지도 받았고 뉴욕의 일계인은 지금도 이러한 방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계획[해외 일계인 대회의 개최]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번 계획을 들은 이곳 일계인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2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해외 일계인 대회이었기에 당초 대회 개최의 취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제1회 대회의 경우 전쟁 중 단절된 일본의 가족, 친지와의 연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거주 일계인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계인 대회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자리를 잡아 가는데 이는 중남미 지역 일계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초 일본인의 해외

24) 土屋隼(1956)「海外日系人大会開催に関する件」『外務省外交史料I'-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민은 19세기 후반 하와이, 미국 본토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24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인 이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후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송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는 북미 지역보다 큰 일계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일계인의 경우, 이주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과 직접적인 교전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모국과의 관계 복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해외 일계인 대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 제2회 대회의 해외 연락 위원의 지역 구성을 살펴보면 총 8명 중, 2명만이 미국 거주 일계인이고 나머지 6명은 각각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쿠바 등 중남미 지역 거주 일계인 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남미 지역 일계인 중심의 구성은 미국 지역 일계인의 우려와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계인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참가하는 일계인이 모국과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해외 이민의 활성화 요구

해외 일계인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초점이 맞춰졌던 문제는 일본으로 부터의 계속적인 이민 송출이었다. 일계인의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새로운 이민 유입은 일본어 및 일본 문화의 계승,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내 비즈니스의 활성화 그리고 이주국 내에 있어서의 민족 집단으로서의 존재감 확보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자체의 양적, 질적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 전후 재개된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이민 송출은 해외 일계인 대회의 중요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해외 일계인 대회가 연차 대회로 자리잡은 1963년 이후 각 대회에서 채택된 대회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이민을 권장하는 항목이 눈에 띠는데,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이민 송출이 끝나는 1973년까지의 대회 선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1. 해외 이민 권장과 관련된 해외 일계인 대회의 대회 선언 (1963~1973년)

연도	내용
1963 (제4회)	해당 사항 없음
1964 (제5회)	일본 청소년에게 해외 웅비(雄飛)의 사상을 배양하여야 한다
1965 (제6회)	해당 사항 없음
1966 (제7회)	해외 이주 부진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이주 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1967 (제8회)	해당 사항 없음
1968 (제9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이주 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1969 (제10회)	중남미 이주를 활성화 하고 미국의 신 이민법을 반영한 이주를 촉진하여야 한다
1970 (제11회)	해당 사항 없음
1971 (제12회)	국내외 정세를 살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본인의 해외 발전 방책(이주, 기술 협력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
1972 (제13회)	해당 사항 없음
1973 (제14회)	해당 사항 없음

위의 표로부터 이 시기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2년에 한 번 꼴로 해외 이민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항목이 대회 선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 정책의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중심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당시 일본으로 부터의 해외 이민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패전 직후, 과잉 인구 문제에 고민하던 일본 정부는 해외 이민 송출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였고 1952년 브라질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적고 오지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중남미 지역 각국으로 이민 송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이민 5개년 계획(1953년)', '이민 10개년 계획(1954년)'을 수립하여 해외 이민의 확대를 꾀하였으며, 그 결과 특히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해외로 이민하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1960년을 정점으로 해외 이민 송출 수가 급격히 감소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1961년에 발생한 소위 '도미니카 사건', 즉, 도미니카로 이주한 이민 중 일부가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단 귀국하는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은 이미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고 소위 '배출-흡입(push-pull) 이론'이 강력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19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년대 후반 이후 경제 성장의 결과가 가시화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은 해외 이민의 '배출 요인'이 매우 약해졌음을 의미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가 해외 이민 송출 대상으로 설정한 지역의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의 오지이고 이곳으로의 농업 이민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은 더 이상 매력적인 '흡입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해외 일계인 대회가 연차로 대회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이민은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로 사양길에 접어든 상태였던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변화는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도 인식되고 있었다. 제9회 대회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최근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에 의해 해외 이주가 부진한 것은 장래의 일본 민족의 해외 발전을 위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발본적인 이주 정책 확립을 도모하여야 하겠다.[25]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외 일계인 대회를 통해 일계인은 일본 경제를 둘러싼 변화로 인해 해외 이민 송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족의 해외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며 관련 정책의 확립을 통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1973년까지 국가의 해외 이민 정책이 존재하고 작은 규모로 나마 이민 송출이 이어진 배경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해외 이민의 활성화 주장은 점차 해외 일계인 대회의 주된 논의 사항에서 벗어난다. 물론, 일계인의 입장에서는 일계인 커뮤니티의 양적, 질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해외 이민 송출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하지만, 이는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바램으로 일본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구체적으로는 미증유의 고도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외 이민의 활성화 요구는 설득력이 없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확대 노력 또한 매우 단기간에 걸쳐서만 모국 측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후 해외 일계인 대회는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일본과

25) 海外日系人協会(1968)「第9回海外日系人大会における決議事項」『外務省外交史料I′-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계인의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거리 모색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Ⅳ. 모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의 제기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정착기

1. 일본 문화, 일본어 계승 노력

1970년대에 들어서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이민은 결혼,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등을 위한 개별적인 형태로는 계속 이루어졌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고, 이전 시기에 주를 이뤘던 대규모 이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는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이민 중단은 일계인 커뮤니티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어졌음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 하에서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 또한 이전과는 다른 내용과 형태를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주국에 이미 존재하는 한 민족 집단에게 있어서 모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이민 송출은 커뮤니티 자체의 존속,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이민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노동력, 예를 들어 레스토랑, 슈퍼 등으로 대표되는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business)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월한 확보를 의미할 뿐 만 아니라, 모국 문화와 모국어의 계승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이주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민족 집단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관련 논의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일계인 대회의 주요 논의 과제는 일본으로 부터의 새로운 이민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 사이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이었는데, 1976년에 개최된 제17회 대회에서는 대회 선언 채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측면을 명확히 하였다.

> 앞으로 일본과 해외 일계인 사회와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확보하기 바라면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일본의 조야(朝野)에 대한 요망 사항을 채택하였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함과 동시에 실현에 힘 써 줄 것을 해외 일계인 협회에 부탁한다.[26]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전통적인' 유대 관계"의 확보이다. 해외 일계인 대회는 당초 '라라 물자'라는 일계인으로 부터의 자원 투입에 힘입어 시작되었으나, 이후 일본이 미증유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모국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잇는 사람의 흐름마저 끊기자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 규정은 보다 원초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진다. 즉, 모국의 사회 변동 속에서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를 활용론적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배경 조건이 사라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모국과의 '전통적인'연결 고리 유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일본 문화와 일본어의 계승을 위한 노력이었다.

일본 문화와 일본어 계승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일계인 커뮤니티 내에 이제껏 자생적으로 존재해 왔던 일본어 교육 시설과 일본 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우선, 일본어 교육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민 초기부터 자녀의 일본어 학습을 위해 일계인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왔던 '일본어 학교'에 대한 모국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주재원, 유학생 등 '재류 방인(在留邦人)', 즉, 해외에 중단기로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를 위한 시설인 '일본인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교하며, '일본어 학교'가 가지는 고유의 존재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27]

> 해외 주재원 자제에 대한 일본어 교육은 정부의 원조도 있고 점점 충실해지는 한편, 일계인 자제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대해서도 그 의의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조성, 충실해 질 수 있도록 요망한다.[28]

---

26) 海外日系人協会(1977)「第17回海外日系人大会概要報告」『海外日系人』1, p.92.
27) '일본어 학교'와 '일본인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겠다. 최민경(2012), 앞의 글, pp.153-161.
28) 海外日系人協会(1978)「第19回海外日系人大会に十一ヵ国参加」『海外日系人』4, 海外日系人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일본 문화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들 시설은 일계인 간의 연락, 친목을 위한 문화 회관, 일본인 이민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박물관, 이주국에 있어서의 일본 문화 전파를 담당하는 기관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이러한 기관이 결국에는 일본과 일계인의 유대 관계 유지에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며, 운영 및 관리를 일계인 스스로의 노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이루어진 일본 문화와 일본어 계승에 관한 논의는 일계인의 일본 유학 추진이라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 문화와 일본어 계승이라는 과제 앞에서 해외 일계인 커뮤니티는 젊은 세대가 모국 일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모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일계인의 일본 유학은 대부분 조부모 혹은 부모의 출신 광역 자치 단체, 즉,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초청하고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현비(県費) 유학'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제도는 본디 전후 이민 송출 지원 정책의 하나로 당초 중남미 오지로 이주한 이민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따라서 그 대상은 전후 중남미 이민 1.5세, 즉,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한 세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민 송출이 중단된 1970년대 중반 이후 '현비 유학' 제도는 전후 이민을 지원 한다는 의미 보다 모국 일본의 '전통' 계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귀국 후 이들 유학생은 각자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일본에서 얻은 지식, 경험을 일계인 2세는 물론, 일반 사람에게도 전하고 있으며, 가정주부가 된 경우, 자녀 교육에 일본의 전통을 접목시키는 등 유학 성과는 현저해 감사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중남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고려하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중략) 지방 정부의 재배려와 중앙 정부의 보조 강화를 요망한다.[29]

会, pp.10-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나온 이와 같은 목소리는 이후 '현비 유학생 제도'의 대상이 전후 중남미 이민 1.5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대되어 오늘날 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 하였다.

2. 일계인의 지위 확립

해외 이민 송출이 중단된 후 1980년대에 걸쳐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일계인이라는 존재는 점차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갔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전후 비정기적으로 나마 외무성에 의해 발표되어 왔던 일계인 수에 관한 통계가 1982년부터는 공식적인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국적 이탈자와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외무성의 소극적 태도"가 명확히 나타난 것이었으며,[30] 당시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일계인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31]이 시기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생활권이 일본이라는 공간적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화"가 성립되었고,[32] 해외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적어지면서 일계인의 존재감 또한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해외 일계인 대회에 있어서 큰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해외 일계인 대회의 대회 선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위(status)'라는 말이 흥미롭다.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 '지위'는 '역할'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 이는 모국 일본에 있어서 일계인의 사회적 위치 및 맡은 바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포함한다.

---

29) 海外日系人協会(1977)「第18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 海外日系人協会, p.38.
30) 福田友子(2002)「国家による成員の選別過程—1990年入管法改定と『日系人』を事例として」『社会学論考』23, 東京都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会, p.33.
31) 전후 일계인 관련 통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있다. 최민경(2012), 앞의 글, pp.146-153.
32) 酒井千絵(2001)「ネイションの問い直しと『移民の空間』—現代日本をめぐる人の国際移動を事例に」山脇直司『ネイションの軌跡』東京: 新世社, p. 2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2. 일계인의 '지위'와 관련된 해외 일계인 대회의 대회 선언 (1979~1984년)

연도	대회 선언문
1979 (제20회)	일계인의 지위 확립을 일본 정부에 요망한다.
1980 (제21회)	일계인에 대한 모국측 인식을 심화하고 일계인의 역할, 지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 한다.
1981 (제22회)	일계인이 수행하는 역할, 지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 한다
1982 (제23회)	일계인이 모국 일본과 이주국 사이에서 수행하는 국제적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1983 (제24회)	해당 사항 없음
1984 (제25회)	일계인 사회를 매개로 한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위의 표는 '디아스포라 정착기'에 해당하는 시기, 일계인의 지위 확립과 관련하여 채택된 대회 선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일계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일계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모국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렇다면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계인의 지위와 역할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가장 단적으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은 1982년 제23회 대회의 대회 선언이다. 여기서는 "일계인이 모국 일본과 이주국을 잇는 국제적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장되었는데,[33] 이는 일계인의 지위와 역할을 '국제 교류의 가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79년 제20회 대회의 대회 선언 또한 참고할 수 있겠다.

> 우리들[일계인]은 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로서 국제 교류에 대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중략)[해외 일계인은] 일본이 보유하는 '해외 자산'으로서, 문화, 기술, 경제 교류 대상국의 당사자이므로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자산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일계인의 지위 확립을 일본 정부에 요망한다.[34]

33) 海外日系人協会(1982)「注目あびた第23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12, 海外日系人協会, p.12.
34) 海外日系人協会(1979)「第20回海外日系人大会—10ヵ国から500人集う」『海外日系人』6, 海外日系人協会, p.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와 같은 내용의 논의 사항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국 일본에 있어서의 디아스포라 일계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약화에 대한 경종과 유대 관계 확보의 필요성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당시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국제 교류의 가교'로서의 일계인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국제 사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일본의 ODA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시기이며, 인종 분리 정책을 펼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계속적인 경제 교류 등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계인은 이주국에서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이민으로서 길러온 국제적 감각을 기반으로 일본과 국제 사회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함으로써 모국에서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 교류의 가교'로서 일계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은 1980년대 후반, 미국과의 경제 마찰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주장된다.

> 오늘날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경제 마찰이 상징하는 것처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우리들 일계인의 거주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일계인에게도 어쩔 수 없이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을 방지, 경감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제 마찰은 관계국 간의 문화 교류나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가열된다. (중략) 우리들 일계인은 민간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거나 대일(対日) 이해의 매개체가 됨으로써 공헌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거주국의 언어, 풍속, 습관 등을 잘 알고 이문화(異文化)에 적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35]

이 시기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에 의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급증하였고 이는 미일 통상 마찰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35) 海外日系人協会(1986)「成果をあげた第27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19, 海外日系人協会, p.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계인은 스스로가 “민간 국제 교류”를 담당함으로써 국가 간의 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측면은 재미 일계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는데,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미일 통상 마찰이 미국의 일계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V. 글로벌화의 진행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변화: 디아스포라 재이동기

1. 재외 선거, 이중 국적 허용 문제의 제기

1990년대에 들어서 해외 일계인 대회의 대회 선언에는 이전 시기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재외 선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가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또한 글로벌화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는 단적으로 재류 방인 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1987년 518,318명이었던 재류 방인 수는 1996년 763,977명까지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약 50% 늘어났다.[36] 특히, 비즈니스,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증가 폭이 컸으며, 이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그만큼 활발해 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재류 방인이 해외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는데, 흥미롭게도 해외 일계인 대회 또한 1990년대 들어서 꾸준히 이러한 목소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해외 일계인 대회가 재외 선거 문제에 활발히 관여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화에 따른 재류 방인 전반의 증가라는 변화를 동력 삼아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일계인 1세의 재외 선거 참여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실은 전후 이민을 중

36) 外務省(1997)「海外在留邦人数統計」,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97/tokei _1_2.html (검색일자:2014.6.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심으로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일계인 1세는 1980년대 초반 이미 재외 선거 제도의 시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은 요구는 "일본인의 생활권이 일본이라는 공간적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화"[37] 속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소수의 일계인의 특수한 희망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을 둘러싼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재외 선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이다.

> 이들 1세가 오래 동안 가져왔던 불만은 일본의 국정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계인 1세 뿐만이 아니라 기업 주재원 등 해외 거주 일본 국민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8]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1998년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公職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공포되어 2000년 5월 이후 해외에서 국정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선거 참여 절차의 간소화, 선거구 선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일부 현실화되었다.

재외 선거의 시행과 확대는 글로벌화 시대에 초국가적인 사회 공간을 살아가는 이민의 증가를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제도 상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이중 국적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생 이외의 경로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따라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측면은 오늘날 모국과 이주국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이민의 생활과 괴리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 재외 일본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한다. 전 세

37) 酒井千絵, 前掲書, p.211.
38) 海外日系人協会(1990)「第31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7, 海外日系人協会, p.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계적인 글로벌화의 진행 속에서 해외 일계인은 이동한 나라에 따라 취직, 기업, 교육 등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일본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에 의해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점을 국회, 법무성에서 희망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중 국적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한다.[39]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재외 일본인'이라는 애매모호한 대상을 이중 국적 문제의 당사자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애매모호한 대상 설정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문제의 당사자로 포섭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강력한 해결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해외 일계인 중 실제 이중 국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이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세대, 즉, 1세와 일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이주한 1.5세에 국한된다. 이들은 이주국의 국적 취득이 곧 일본 국적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외국인으로서의 다양한 불편을 감수하며 일본 국적을 유지해 왔으며, 이에 이중 국적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이중 국적 허용 문제가 비단 이들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글로벌화 시대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류 방인 또한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외 일본인'의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재류 방인 전반의 증가를 동력 삼아 재외 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일계인 1세의 재외 선거를 실현해 낸 원리와 유사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1990년대 들어서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재류 방인과의 문제 공유라는 점을 내세워 관련 문제를 일반화함으로써 일계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온 것인데 이는 과거 디아스포라 정착기에 있어서 '일본인 학교'와 '일본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재류 방인과 일계인을 구별 짓고 대립하였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 재일 일계인에 대한 지원과 제언

글로벌화의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의 이동을 급증시키

39) 海外日系人協会(2004)「第44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54, 海外日系人協会, p.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남미 지역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지역의 일계인 중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1세와 1.5세, 2세는 단기간 목돈을 벌 목적으로 일본에 귀환한다. 일본은 선진 산업 국가 중, 유일하게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야기, 사회 문제화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국적자인 귀환한 일계인은 체류 상의 문제를 지니지 않는 합법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1990년 소위 '입관법(入管法)'의 개정을 통해 일본 국적을 지니지 않는 일계인 3세에게도 특혜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정주자(定住者)'라는 체류 자격이 생기면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계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입관법 개정 이전의 일계인의 귀환은 어디까지나 해외에서 오래 기간 머무른 일본 국적자가 귀국하는 형태로 통계 상 집계되지 않았고, 이들은 대부분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귀환'이었다. 한편, 입관법 개정 이후의 일계인의 귀환은 법적으로 외국인인 3세가 주를 이뤄 이들은 재일 외국인 관련 통계의 집계 대상이었고, 많은 경우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귀환'의 양상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일 일계인이 일본에 있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1990년을 전후한 일계인의 귀환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현상과 맞물리는 형태로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잇는 새로운 사람의 흐름이 생겨났음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디아스포라 확대기, 디아스포라 정착기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큰 변화였으며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자리매김한다. 1990년대 초반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이루어진 일계인의 모국 귀환과 관련된 전형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중간 착취, 인권 무시의 근절은 물론, 적절한 임금, 노동 조건,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관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이 기술, 기능 습득의 기회를 보장하여 일계인 스스로가 앞으로의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중략)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면 '데카세기'는 이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계인, 특히 일본을 접할 기회가 적은 2세, 3세에게 있어서 일본을 알고 일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도 인식되어, 이들이 일본은 모국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 전체의 더욱 따뜻한 배려와 협력을 부탁한다.40)

위의 인용으로부터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당초 재일 일계인 관련 문제가 어떠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당초,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는 일계인의 일본 체류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에 그치고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주국으로 돌아갈 것, 바꾸어 말하자면, '데카세기(出稼ぎ)'라는 전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재일 일계인이 노동자로서 부당하지 않은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맞춰졌으며, 이는 이들이 '데카세기'를 하루 빨리 마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데카세기'가 일계인 개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이주국에 귀국한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본의 선진 기술, 기능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었는데, 이 또한 일계인의 일본 귀환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일계인의 일본 체류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차별화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는 일계인은 노동자로서 돈을 버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이를 넘어서 이들에게 일본은 모국이고 일본 체류는 단순한 입국이 아닌 귀환이므로 일본어, 일본 문화를 학습하고 아이덴티티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인데, 여기서 재일 일계인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구별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카세기'를 전제로 한 재일 일계인 문제의 논의는 이들의 일본 정주가 기정사실화하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설득력을 잃어간다. 재일 일계인은 단기간에 목돈을 벌어 이주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높아진 소비 생활 수준으로 인해 생각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일본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꾸리게 된 경우, 자녀들은 성장하여 일본 생활이 익숙해졌으며, 이

40) 海外日系人協会(1991)「第32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9, 海外日系人協会, p.4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들이 돌아갈 곳, 즉 중남미 지역 각국의 경제 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일 일계인은 일본에서의 정주라는 소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변화는 재일 일계인을 일본의 다양한 정주 외국인 집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이는 1990년대 모국에서의 '데카세기'와 이주국으로의 귀환을 강조하며 재일 일계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부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재일 일계인은 일본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 집단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정주 외국인 집단과의 연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해외 일계인 대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제43회 대회에서는 재일 일계인 집주 지역 수장과 행정 공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외국인 집주 도시 회의(外国人集住都市会議)'에 공식적으로 찬동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정주 외국인 문제의 일환으로 재일 일계인 문제를 바라본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후 일본의 정주 외국인 문제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 제언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후 일본 사회의 변동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변화 속에서 일계인이 모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무엇을 문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제언을 해 왔는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전후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는 모국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의 국제적인 사람의 이동 양상에 따라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변화해 왔으며, 이는 해외 일계인 대회의 전개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으로부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로 이민 송출이 이루어졌던 '디아스포라 확대기'에는 세계 대전으로 단절되었던 모국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복구하고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계속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이민 송출을 통해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해외 일계인 대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외 이민 송출이 중단된'디아스포라 정착기'에 접어들어서는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잇는 사람이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모국과 일계인이 '전통적인' 유대 관계 확보에 힘을 쏟게 되었으며 일본어, 일본 문화의 계승을 위한 관련 시설 지원 및 모국 유학 제도 확충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다시 한 번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잇는 사람의 이동이 시작된 '디아스포라 재이동기'에 들어서는 초국가적인 사회 영역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일계인이 가지는 특징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류 방인과의 문제 의식 공유를 통해 재외 선거, 이중 국적 허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주 외국인으로서 일본 사회를 살아가는 재일 일계인이 직면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본 논문의 분석은 일계인이 언제나 모국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둘러싼 사회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외 일계인 대회라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과 스스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문제 제기와 제언을 해 왔으며, 그 범위는 비단 경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초국가주의의 대두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가 지니는 한계, 즉, "모국 중심적 활용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검증하고 디아스포라를 연구의 중심에 자리매김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동원하고 이들로부터 모국으로의 자원 투입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특정 목적 하에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 특정 영역에 국한되고 이미 설정된 목적에 맞추어 분석 내용이 전개 되는 주객전도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관련 연구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시도한 해외 일계인 대회에 대한 통시적 분석은 앞으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상, 방법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전후, 모국 일본과 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해외 일계인 협회의 활동, 그 중에서도 해외 일계인 대회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이 협회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전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세대, 지역, 성별 등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내부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고찰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해외 일계인 협회의 활동과 해외 일계인 대회의 대회 선언 등에는 드러나지 않는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 또한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발행된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 등 새로운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디아스포라 연구의 과학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김경학(2006)「초국가주의와 종족 네트워크: 인도인 디아스포라 사례를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2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249-265

김재기(2010)「글로벌 시대 '세계 한상 대회'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한국동북아논총』57, 한국동북아학회, pp.319-341.

임채완(2008)「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 현상' 접근: 초국가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49, 한국동북아학회, p. 486.

임채완・리단(2005)「초국가 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오프라인 사례 분석: 화상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13(2), 대한정치학회, pp.219-241.

임채완・임영언・박구용(2013)『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서울: 북코리아.

전형권(2004)「세계의 인교 네트워크 발전과 인도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에 주는 함의」『대한정치학회보』12(2), 대한정치학회, pp.201-228.

_____(2005)「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대한정치학회보』13(2), 대한정치학회, pp.95-125.

최민경(2012)「전후 일본 정부의 일계인에 대한 인식 변화: 1960~1980년대 재외 국민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55(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135-137; 146-153; 153-161.

최승현(2007)「한민족 네트워크 벤치마킹을 위한 화교 네트워크의 의의」『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19,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267-281.

최창모(2007)「세계 유대인 네트워크와 반유대주의」『디아스포라연구』1(1),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pp.79-94.

飯野正子(2000)『もう一つの日米関係史—紛争と協調のなかの日系アメリカ人』東京:有斐閣, p.114.

石田智恵(2010)「戦後日本における『日系人』の誕生—1957年『海外日系人大会』開催の意味」『移住研究年報』16, 日本移民学会, pp.97-108.

海外日系人協会(1968)「第9回海外日系人大会における決議事項」『外務省外交史料I′-1-8』.

_____(1977)「第17回海外日系人大会概要報告」『海外日系人』1, 海外日系人協会, p.92.

_____(1977)「第18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 海外日系人協会, p.38.

_____(1978)「第19回海外日系人大会に十一ヵ国参加」『海外日系人』4, 海外日系人協会, pp.10-11.

_____(1979)「第20回海外日系人大会—10ヵ国から500人集う」『海外日系人』6, 海外日系人協会, p.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_____(1982)「注目あびた第23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12, 海外日系人協会, p.12.
_____(1986)「成果をあげた第27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19, 海外日系人協会, p.16.
_____(1990)「第31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7, 海外日系人協会, p.43.
_____(1991)「第32回海外日系人大会開く」『海外日系人』29, 海外日系人協会, p.42.
_____(2004)「第44回海外日系人大会」『海外日系人』54, 海外日系人協会, p.11.
酒井千絵(2001)「ネイションの問い直しと『移民の空間』—現代日本をめぐる人の国際移動を事例に」山脇直司『ネイションの軌跡』東京: 新世社, p.211.
土屋隼(1956)「海外日系人大会開催に関する件」『外務省外交史料I′-1-8』.
福田友子(2002)「国家による成員の選別過程—1990年入管法改定と『日系人』を事例として」『社会学論考』23, 東京都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会, p.33.
Agunias, Dovelyn Rannveig & Kathleen Newland(2010),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A Handbook for Policymaker and Pratictioners in Home and Host Countries*, Washingt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Kleist, Nauja(2008), "Mobilising the 'The Diaspora': Somali Transnational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2), pp.307-323.
Mani, Bakirathi & Latha Varadarajan(2005), "'The Largest Gathering of the Global Indian Family': Neoliberalism, Nationalism, and Diaspora at Pravasi Bharatiya Divas", *Diaspora* 14(1), pp.45-74.
Schiller, Nina Glick, Linda Basch & Cristina Szanton Blanc(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 p.1.
Sives, Amanda(2012), "Formalizing Diaspora-State Relations: Processes and Tensions in the Jama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50(1), pp. 113-128.
Tölölyan, Khachig(1996),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5(1), p.3.
Weiner, Agnieszka(2010) "Instrumentalising Diasporas for Development: Internal European Policy Discourses" in Rainer Bauböck & Thomas Faist,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海外日系人協会(2)「日系人について知ろう—海外日系人とは」, 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 (검색일자: 2014.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_____(2013)「海外日系人大会」, http://www.jadesas.or.jp/taikai/index.html (검색일자: 2014.6.3.)
外務省(1997)「海外在留邦人数統計」,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 97/tokei_1_2.html (검색일자: 2014.6.10.)

❖ 투고일 : 2014.06.26
❖ 심사완료일 : 2014.08.11
❖ 게재확정일 : 2014.08.1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고찰
- 해외 일계인 대회를 중심으로 -

최민경

본 논문에서는 해외 일계인 대회의 전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후,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 변화를 검증한다. 해외 일계인 대회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하나이다.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최근 새로운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많은 연구가 "모국 중심의 활용론적 접근"을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특징이며, 이는 모국의 사회 변동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변화를 염두에 둔 통시적 분석, 그리고 모국이 아닌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일계인이 주체적으로 대회 선언 채택에 관여하는 해외 일계인 대회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일계인 대회는 1957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일본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사이의 국제적인 인구 이동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해왔다. 대회 선언을 분석해 보면, '디아스포라 확대기'에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과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이민 송출이, '디아스포라 정착기'에는 모국과의 전통적인 유대 강화와 일계인의 지위 확립이, '디아스포라 재이동기'에는 재외 선거, 이중 국적, 그리고 정주 외국인으로서의 재일 일계인 문제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전후 일계인이 항상 모국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둘러싼 사회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외 일계인 대회라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제 제기와 제언을 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 작업은 앞으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연구가 보다 총체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분석 대상과 방법 상 시사적일 것이다.

Key Words : 일계인, 해외 일계인 대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A diachronic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ikkeijin

- Focusing on the Convention of Nikkei and Japanese Abroad -

Choi, Min-kyung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land Japan and diaspora Nikkeijin has changed during postwar times by analyzing the diaspora network, Convention of Nikkei and Japanese Abroad (CNJA). Recently, diaspora network studies have gained attention as a new research field and made quantitative growth. However, most still take "a homeland-centered utilization approach" and this characteristic should be overcome for further develop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arlier studies,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a diachronic analysis that pays attention to social changes of homeland and diaspora communities and a diaspora-centered analysis, not a homeland-centered on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NJA is a meaningful case, because it has a half-century history and Nikkeijin actively participates in adopting convention declarations. The CNJA has focused on various other issues as phases of population movements between homeland and diaspora communities have changed. During 'the period of diaspora expansions,' building a diaspora network itself and continuing emigration from Japan were critical issues. Issues of strengthening traditional ties between Japan and Nikkeijin and establishing the diaspora's status in the homeland were actively discussed during 'the period of diaspora settlement.' Finally, since 'the period of diaspora removement,' an overseas voting system, dual nationalities, and Nikkeijin as residents in Japan have appeared as new issues. This analysis shows that during postwar times, Nikkeijin have constantly reacted sensitively to social changes of homeland and diaspora communities and defined the relationship with Japan raising related questions and suggestions. Ultimately, the findings in this paper will help diaspora network studies develop more comprehensibl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methodology and cases.

Key Words : Nikkeijin, the Convention of Nikkei and Japanese Abroad, diaspora, network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